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고재*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수빅에 위치했고, 시설은 예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에어컨도 추워서 끌 정도로 잘 작동되었고, 무엇보다 화장실 구조가 3인1실인 경우 용변과 샤워시설이 붙어있을 경우 생활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셔서 정말 너무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담당 이사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그릴도 빌려서 인원들끼리 바비큐파티도 할 수 있었고, 수영장시설도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해서 언제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	수업내용은 어떻게보면 너무 심플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영어실력이 너무 월등하게 좋아서 그렇게 말한 부분은 아니지만, 문법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원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워가기 때문에 4주간 교육 중에는 조금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단어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단어장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외우는 대부분 어휘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소한 단어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방식이 어제 있었던 일이나,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형식의 회화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어를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문구나 회화말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ctivity	액티비티는 주말에 했는데, 고아원이랑 요트타러 갔던 게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이었습니다. 일명 "얏"이라고 불리는 배는 날씨가 좋아서 인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멋진 풍경을 보여줬고,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다에 빠져서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 그만의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강연도 너무 좋았고, 쿨하게 해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같은 경우는 몇몇 학생들은 거기서 율기도 하고, 저는 얘기들이랑 노는데 너무 재밌었고, 애들이 우울하고 조용하고 이럴 것으로 예상하고 갔지만, 밝고 웃음도 많았고 이쁜 짓만 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는 정말 퍼펙트합니다. 겨울에 가게되면 한국처럼 춥지않고 딱 늦여름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엄청 덥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 보다는 딱 놀기 좋은 날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에서가 정말 춥 습니다. 학교안에서는 필리핀사람들은 에어컨을 트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인지 추위를 안타고 오히려 춥다고 느껴도 계속 켜둡니다. 그래서 긴팔 맨투맨도 괜찮습니다. 긴팔도 괜찮은 기후였습니다.
안전	처음에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무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 상 거기 현지에서 지내면 걱정이 덜해집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냥 그거 물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여 모기퇴치제도 많이 들고 갔지만, 막상 보면 4살 아기들도 그냥 잘 살고있고, 그곳에서 지내는 현지인들이나 한국분들 모두 그냥 모기 물리면 물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자연 스럽게 저희들도 모기물려도 그냥 한국에서 모기물린 것처럼 반응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수빅베이 안에서는 위험할만한 느낌을 전혀 못느꼈고, 마닐라대학을 방문할 때 살짝 조심하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냥 평범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필리핀여자들입니다. 학국 남 성을 보면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웃고 지나가는데,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 만 듣기로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숙소	담당 이사님께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셔서 정말 숙소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지 정말 좋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음식 이 나오는데 정말 인원들 다들 맛있어하고, 특히 라볶이도 해주시고 감자 탕도 정말 맛있게 해주시고, 그냥 한국음식을 한국보다 더 맛있게 먹은 기억입니다.
식사	학교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메뉴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여 성 학우들은 점심이랑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다고 할정도 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녁은 나가서 가볍게 하고왔는데, 필리핀 은 물가가 저렴해서 정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다녀서 필리핀에 휴양을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	FB를 타고 다녔고,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묻고 다니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있는데, 처음에는 택시값이 저렴하다고 막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나중에 현지에 조금 적응하면 택시값이 그리 싸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여행,교통	370,000(320\$)원	
추가	20,000원	
합계	1,125,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에 환전을 해두는게 좋고 돈을 350달러 정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0달러 정도하면 여유롭게는 쓰는데 과소비의 경향이 있고, 저는 320정도했는데, 나름 저렴하게 놀았는데도,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추가환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유의하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영어 스킬을 정말 업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의지를 불태웠지만, 막상 가시면 그렇게 엄청 큰 발전을 기대하시면 저처럼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못알아 듣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조금만 공부하면 전 날에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문구를 바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마다 언어 가는 것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확실히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어교육을 받으러 간 친구들끼리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사건도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졸업식 할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요트를 탈 때 선생님들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광고를 찍을 때 사용했던 의상을 입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선생님과 수업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기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